

한국투자증권 “글로벌IB급 패밀리오피스 구축”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직원들

고객자산가의 부동산, 세무, 기업승계 등 자산 전반을 관리해주던 '패밀리오피스'가 투자형 패밀리오피스로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전담 조직 'GWM(Global Wealth Management)전략담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패밀리오피스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기업체 규모의 초우량 자산가들이 개인자산관리 회사(싱글 패밀리오피스)를 만드는 데서 착안한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를 의미한다. 록펠러 가문을 비롯해 마이클 델 컴퓨터 CEO,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이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자산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UBS 등 고액자산가 고객이 많은 글로벌IB가 자산가 고객을 위한 전담 관리조직을 내부에 설립하고 공동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멀티 패밀리오피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관투자자처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인수, 인수합병(M&A) 딜 등 증권사의 각종 투자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또 단순 투자 활동을 넘어 가문 구성원들에게 자산관리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식을 제공한다. 투자 방향성, 투자 결과에 대한 예상 기대치, 투자 타입별 시행 가능

여부 및 전략 등을 담은 투자계획서(IPS)를 제시한다. 가문의 다음 세대는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가문 관련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가족기업과 가족 재산의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성과 부(富) 관리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상당한 부를 가진 가족들의 패밀리오피스 설립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9월 GWM전략담당을 신설했다.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자산 관리와 함께 기업 승계를 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까지 지원하고, 각종 법률 및 세무 조언까지 해준다. 금융상품 투자는 물론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 지원,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법률과 세무 자문 등이 서비스에 포함된다.

GWM은 고객의 상황별 패밀리오피스 형태를 제안하고 설립을 자문한다. 독립된 투자 위원회 운영 및 IPS 제정을 통해 가문의 자산 관리에 필요한 투자 운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소유주(피승계자), 다음 세대(승계자), 승계 실무자인 CEO·CFO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정기 콘퍼런스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